

제41회 파리에어쇼 전경

### 파리에어쇼 성황리에 마쳐

제 41회 파리 국제 에어쇼가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파리 북동부 르 부르제공항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에어쇼는 미항공우주국(NASA)이 불참했으나 항공기 제조산업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시점에서 열려 항공기 판매를 위한 경쟁이 더욱 심했다. 41개국에서 1천6백30개 제품이 출품되었고 2백21종의 항공기가 전시됐다. 출품된 221종의 항공기 가운데 25기종이 처음 공개되었는데, 특히 미공군 “배트윙” B2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와 미 보잉사 최신모델인 쌍발 보잉777기가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개막연설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에서 산업기반을 보호하기위해 유럽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증가할 것을 촉구하고 “이같은 협력이 없었다면 유럽의 항공우주산업은 벌써 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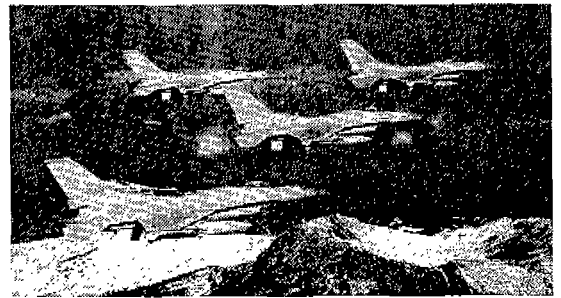
반면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대리 자격으로 참석한 토마스 맥러티 고문은 미국이 유럽 항공우주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럽내 미국 항공제품 판매를 촉진하여 미국의 전체 수출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의 “쇼케이시 유럽” 계획을 소개했다.

### 국내조립 F-16 전투기 공군인도 시작

국방부는 차세대전투기사업(KFP)에 따른 F-16C/D 전투기의 국내조립생산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됐다고 6월 1일 밝혔다.

5월 31일 공군에 인도된 항공기는 KFP사업의 주계약 업체인 삼성항공이 미 록히드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조립해 생산한 것이다. 삼성항공은 오는 97년 중반까지 36대의 F-16C/D기를 조립생산할 계획이며 99년말까지는 72대를 면허(LICENSE) 생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군은 지난 4월말까지 미록히드사로부터 완제기 12대를 인수한바 있다.



공군에 인도가 시작된 국내조립 F-16 전투기

###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제2차 운영위원회가 6월 10일 (토) 서울호프호텔(과천)에서 열렸다.

노오현 위원장(서울대 교수)을 비롯한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3가지 안건이 상정, 원안대로 처리되었으며 통산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동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보고안건 :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추진현황
- 의결안건 :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1차년도 사업계획 수정(안)(심의위원회 안건과 동일)
- 기타안건 :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관련 지침 등 수정 및 제정

회의결과 1차년도 사업계획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 1차년도에 사업수행이 곤란한 국제공동설계 업무 및 국제공동 Joint Venture 설립관련 업무를 2차년도 사업으로 이관시켰다. 또 국제공동설계사무소의 한국 유치를 위해 국내 설계체제를 강화하고 설계 해석장비, 시험시설 등 개발의 기본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기반기술확보를 위해 선진기술도입을 추진키로했다.

##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 제9차 추진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처는 지난달 24일(수)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9차 추진위원회를 과기처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동 추진위원회에는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및 항공우주연구소, 서울대, 과학기술원 등의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6개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정보통신부의 위성사업 참여계획이다. 과학기술처와 통상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에 추가로 참여한 정보통신부는 인공위성의 관제 및 수신용 지상국 개발사업중 관제장치의 개발을 담당키로 했다. 관제장치는 다목적 실용위성 사업비 1,650억원과 별도로 정보통신부에서 100억원을 추가지원하여 금년부터 1998년까지 개발하되 전자

통신연구소를 개발기관으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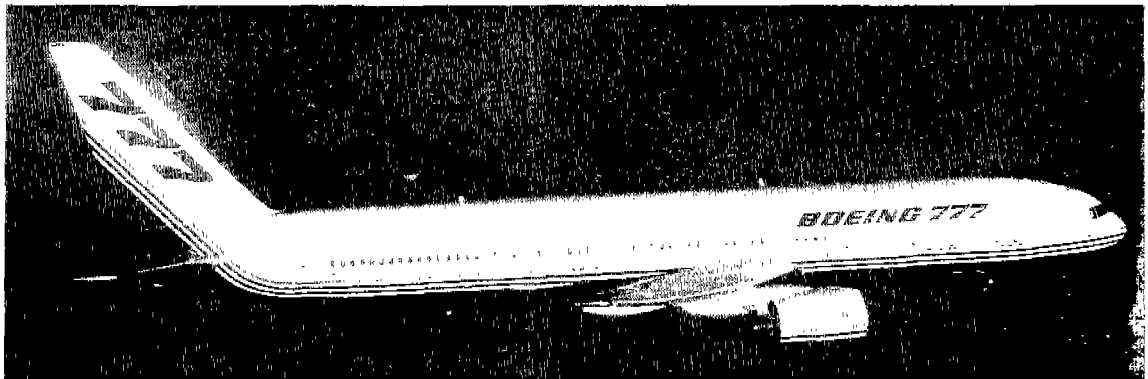
1차년도 사업계획서 변경안에서는 4개 부분체 개발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이 타 부분체 개발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던 현행 사업계획을 수정, 대기업의 중복참여를 배제하고 부분체별로 주관기관이 전담케 하였으며, 부분체 특정품목 개발도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수행토록 했다. 동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공동운영지침 및 추진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 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 정보통신부의 사업 참여 계획
- 연구개발 결과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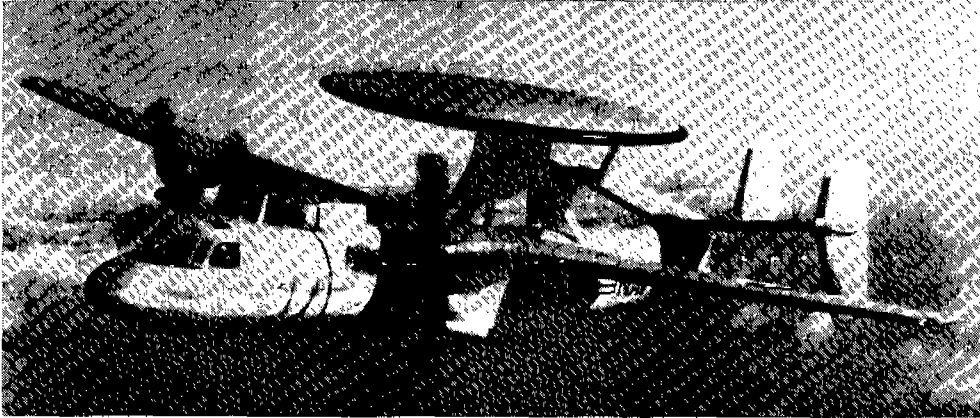
## 대한항공, 보잉사 최신 777여객기 4대 구매

대한항공이 세계 최대의 여객기인 보잉사의 최신형 777-300X 여객기 4대를 발주하는 등 아시아 항공사들이 이 신형 여객기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에어쇼에 참가하고 있는 보잉사는 이날 대한항공과 일본의 전일항공(ANA),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태국의 TAI사 등 아시아 4개 항공사로 부터 이 신형 777-300X 여객기 31대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주문한 B777 최신형 여객기



◀ Northrop Grumman의 E-2C 조기 경보기

이 가운데 20대는 신규 수주이며, 나머지 11대는 기존에 주문한 다른 종류의 비행기를 이 기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총 계약규모는 31억 달러라고 보잉사는 밝혔다.

대한항공은 777-300X 여객기 4대를 5억6천만달러에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미 주문한 777기종 8대 가운데 4대도 이 기종으로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사가 50억달러를 투입해 개발한 신형 여객기는 쌍발 제트엔진 기종으로는 전장 73.8m인 세계 최대의 비행기로 종전 777-200 모델보다 전장이 10m길다.

## 프랑스 E-2C 조기경보기 도입 확정

프랑스는 Northrop Grumman사 제품인 3대의 신형 E-2C Hawkeye 항공기 2대를 5억6,200만 달러에 해외군사 판매(FMS)될 조건으로 구매하기로 서명했다.

공중조기경보기는 항공모함 찰스드골공항에서 운용될 예정인데 프랑스는 모두 4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Northrop Grumman사는 프랑스 구매지원에 있어서 포괄적인 산업보상을 약속했는데 프랑스의 이같은 구매결정을 최근 미 공군의 조기경보기 추가 구입계획과 함께 Northrop Grumman사에게 금세기 동안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역경을 딛고 ▶  
공개된 차세대  
헬리콥터 RHA-66  
Comanche

## 코만치 헬리콥터 공개

미육군의 차세대 정찰용 헬기인 RAH-66 코만치(Comanche) 1호기가 지난 5월 25일 미국 스탠퍼드의 시콜스키사 공장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다. 코만치 프로그램은 베트남전쟁시대 군용헬기의 대체기 프로그램인 미육군의 LHX 사업으로 보잉헬리콥터와 시콜스키 항공사가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당초에 미 육군은 병용기(Light-Utility)와 정찰 및 경공격용으로 5,000대를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병용기 계획은 취소되었고 1990년 9월 미 육군의 조달물량은 1,292대로 대폭 축소되었다.

1994년 말경 동 쌍발헬기는 또한번 취소될 위기를 겪었으나 미 국방성이 총 사업예산을 42억달러에서 22억달러로 거의 절반을 삭감하고 최소수량 8대의 실전배치를 2006년으로 3년 연기한다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의 취소를 면했다.

